

중국어 교육도시 수요조사 연구 수행을 위한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2013. 9

제주발전연구원

I. 조사개요

□ 조사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 교육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교육 과정 운영이 가능한 학교설립·운영 조성 여건 강화로 국제교육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이 필요함
-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 증가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효과 가시화 등에 따라 제주지역 내 중국어교육도시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제주의 자연·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을 활용한 중국어교육도시 조성을 통하여 중국 대비 비교우위의 유학 교육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국 유학 수요를 지역 내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중국어교육도시 조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중국 교육기관의 제주지역 이전(분원 설립) 수요와 조성 이후 중국 유학 수요의 교육도시 내 교육기관 입학수요 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함
- 또한 『제주 중국어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수요분석』을 위해 앞서 설정된 중국 교육기관 유치모델 설정 결과를 토대로 중국 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중국어 교육도시 조성 시 이전(분원설립) 의사를 조사함
 - 유치대상으로 설정된 중국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국어교육도시 조성 시 이전(분원설립) 의사를 조사함
 - 조사 대상 기관은 현재 유학생을 수용하고 있거나, 실제 중국 외 지역에서 이전(분원설립)을 통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설정함

□ 조사계획

- 출장기간 : 2013년 8월 22일 ~ 8월 28(6박 7일간)
- 출장국가 : 중국(북경, 상해, 천진)
- 출 장 자 : 정지형(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책임자), 강창민(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고태호(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출장대상 : 중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국제학교, 상해 한국유학원, 천진매강 중학국제부, 상해유학센터 한국 중국어 교육협의회 상해지회 등

일자	출장지	출장면담 및 답사내용
8.22(목)	북경	교육부 방문 중국 국제학교 방문
8.23(금)	북경	북경한국국제학교 방문
8.24(토)	북경	천진매강중학국제부 방문
8.25(일)	북경 상해	상해로 이동
8.26(월)	상해	상해유학센터 한국 중국어 교육협의회 상해지회 방문
8.27(화)	상해	상해한국국제학교 방문
8.28(수)	상해 제주	상해 출발(16:05) MU2543 제주 도착 (18:30)

※ 당초 교육부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중국 교육부의 내부사정상 당일 인터뷰 일정이 취소됨.

□ 주요 수행사항

- 중국 교육부 관련자 면담 및 자료 수집
 - 최근 국적별, 학교 유형별 통계자료 협조 요청
 - 최근 한국학생들의 중국 내 유학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유입 추세와 동향
 - 중국내 중등학교 외국유학생들의 중국 명문대학교 진학비율?
 - 중국내 국제학교의 유형과 2013년 현재 설립된 학교숫자 등 설립현황은?
 - 국·공립, 사립, 국제학교 등 외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 유형과 각 유형 학교 수

- 사립 및 국제학교 설립시 주체(비영리 혹은 영리 법인 등)
- 중국내의 초·중등 교육기관 등의 외국 분교 설립 가능성
- 향후 제주에 중국교육도시가 조성될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공식인증과 중국내 대학진학 가능성 여부
- 중국 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 한국국제학교, 중국 사립학교 및 중국 국제학교 등 방문
 - 학교 내 외국인(한국학생 수)등의 증가 추이
 - 학교 내 외국인 대상의 별도 교육프로그램이 마련 여부 및 특징
 - 인민중학교 해외 진출 사례
 - 제주에 중국어 교육도시가 설립될 경우 분교 설치 및 투자 의향
 - 향후 제주 중국어 교육도시에 분교 설치 의향이 있을 경우 투자조건 등 제주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II. 현지 인터뷰 주요 내용

1. 인터뷰 질문

- 최근 중국내 외국학생의 유입 동향은 어떠한지?
 - 최근 10년(혹은 4년간 추이 파악) 동안의 국적별, 학교유형별 통계 자료 협조 요 청받으면 좋을 듯
 - 최근 한국학생들의 중국내 유학이 급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입 추세와 동향
- 중국내 중등학교 외국유학생들의 중국 명문대학교 진학비율?(참고사항)
- 중국내 국제학교의 유형과 2013년 현재 설립된 학교숫자 등 설립현황은?
 - 국·공립, 사립, 국제학교 등 외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 유형과 각 유형 학교 수
 - 사립 및 국제학교 설립시 주체(비영리 혹은 영리 법인 등)
- 중국내 사립 및 국제학교의 설립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지, 허용된다면 학교 인가에 대한 규제와 그 정도는?
- 중국내의 초·중등 교육기관 등은 외국에 분교 설립 등이 가능한가?(설립이 가능할 경우 계속 질문)
 - 현재 싱가포르에 북경대 인민중학교 분교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외 분교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 및 설립 학교 수 등 국제학교 등의 현황
 - 외국에 설치된 국제학교의 설립주체 및 유형(국·공립인지, 사립학교 등 민간에 의해 설립된 영리 법인)
 -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외국에 분교설치가 가능한지?
 - 해외분교 설립에 있어 중국의 제도·법률적 근거에 대한 자료 협조
- 향후 제주에 중국교육도시가 조성될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공식인증과 중국내 대학진학이 가능한지?
- 중국 교육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수(한국학생 수) 등 학교 현황(최소 3년 자료)
- 학교내 외국인(한국학생 수)등의 증가 추이(최소 3년 자료)
- 학교내 외국인 대상의 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프로그램의 특징은
- 중국내 초중등학교 해외 진출 사례

- 진출 국가, 학생수 등 일반 현황
- 수업 운영 형식(중국어, 혹은 분교가 설치된 국가의 국어와 혼용, 영어와 혼용)
- 본국의 교육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 외국 분교에서 교육과정 이수후 졸업시 중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특례가 있는지
- 제주에 중국어 교육도시가 설립될 경우 분교 설치 및 투자 의향
 - 현재 제주는 2010년 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어 영국의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73학급 1,508명), 캐나다의 Branksome Hall Asia(60학급, 1,212명) 등 외국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504명) 등 3개의 교육기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향후 제주 중국어 교육도시에 분교 설치 의향이 있을 경우 투자조건 등 제주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 사립 및 사립국제학교의 영리법인인 경우 과실충금의 허용,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 한국내 중국유학수요뿐만 아니라 영어권 유학수요 유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등 2개 외국어 사용

2. 인터뷰 주요 내용

□ 개요

- 일시 : 2013. 8. 23(화) 16:00 ~ 17:30
- 장소 : 북경한국국제학교(북경 소재)
- 면담자 : 유인후(북경한국국제학교 사무국장)

□ 주요내용

- 북경한국국제학교는 북경에 근무하는 한국인 주재원 및 체류자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교육부가 승인한 중국 북경내 국제학교이며, 유치원, 초등, 중등(중학교, 고등학교) 등 24개 학급에 약 1,200여명임.
 - 수업료는 초등인 경우 연 3천불, 중학교는 연 4천불, 고등학교는 연 5천불 수준이며, 한국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해주고 있음.
- 교육과정은 한국내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하되, 중국어 수업이 상대적으로 많고, 사회/과학 등의 교과목은 영어로 수업
 - 중국어 수업인 경우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3년 수업과정 이수 후에는 일상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수준별, 심화 교육이 이루어짐
- 중국내 학교유학생의 수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대학을 포함하여 대략 6만명 수준(추정치)이라고 알려짐. 특히 대학의 경우는 한국인 유학생의 규모를 어느 정도 추정가능하나, 초등 및 중등의 유학생의 통계는 공식적 통계자료도 없을 뿐더러 이를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 초등 및 중등학교에 다니는 한국유학생의 통계는 중국 교육위원회가 갖고 있을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이를 취득하기는 매우 어려움
 - 중국내 한국 유학생 통계 등 관련 자료는 중국내에서도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국교육위원회 실무부서(국제협력과 등)와 긴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식적 접촉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교류가 매우 중요할 수 있음(중국의 공산주의 특성).
- 중국내 국공립학교는 중국정부에서 일정부분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재정운영에 있어 독립적 성격이 강하고 재정확보를 위한 학교차원의 독자적

노력이 중요시됨.

-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규모가 있는 중국내 국공립학교들은 외국인 학생유치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외국인 대상의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국제부를 설치하여 운영
- 현재 중국의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외국에 분교를 설치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는 중국 교육위원회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임.
- 하지만 중국내 국공립학교 재정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특히 재정이 풍부한 대형 명문 학교의 경우(북경의 제4중학교 같은 학교)는 수요가 있을 경우 외국에 분교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제주에서 중국어 교육도시를 조성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염두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제주의 중국어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내 한국 유학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어 교육도시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명문학교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중국내 재정적으로 풍부한 학교인 경우 중국 실정법으로 분교유치가 가능하다면, 제주에 분교 유치에 대해 한번쯤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제주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개요

- 일시 : 2013. 8. 24(토) 16:00 ~ 17:30
- 장소 : 천진매강중학교국제부(천진 소재)
- 면담자 : 연규승(천진매강중학교국제부 교장)

□ 주요내용

- 천진매강중학교 국제부는 전원 중국 이민자 자녀이며, 이들이 졸업후에는 대부분 한국 대학에 특례 입학을 통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감
- 중국내 국공립학교의 학국학생 대상의 국제부는 한국 대학교 입학을 위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재 천진의 경우 초등, 중등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수는 1천명에서 1천 3백명 수준으로 추정됨.
- 1998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곳 천진뿐만 아니라 중국내 한국 유학생을 위한 국제학교가 꽤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 점차 급감하고 있는 추세임. 중국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임
 - 이는 교민수와 비례하는데 천진도 현재 교민수가 예전에 비해 감소하여 3.5백명 수준이며, 학생수도 1천명에서 1천3백명 수준임
- 중국내 초중등 학교로 유학오는 학국학생의 경우 50% 이상이 결혼가정이며, 그 이유는 국내의 대안학교로 보낼 바에는 중국 유학을 보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경우임.
 - 나머지 50%는 중국시장의 확대 등 향후 세계속에 중국의 지위가 부상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유학을 오는 경우임.
- 국제부의 경우에는 비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국제부의 설치이유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여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즉,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위함.
 - 이곳 매강중학부 역시 한국인 이민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생 유치를 위해 매강중학교 내에 국제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후에는 매강중학교 졸업 인증
 - 이곳 매강중학교 국제부의 1년 수업료는 7백만원 수준이며, 미·영 국제학교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제주에 중국어 교육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국어 교육만을 위한 국내 외국어 고등학교와는 차별적이어야 하며, 학교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야 할 것임

- 중국내 초중등학교의 외국 분교설치는 가능하다고 보며, 특히 국공립학교보다는 경쟁력 있는 사립학교(국공립학교의 국제부 포함)가 용이할 수 있음.
-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초·중등 유학생의 상당수가 결혼가정이며, 이들 부모의 유학 동기가 중국어 습득을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수요를 적극 활용하여 제주에 규모있고 경쟁력 있는 중국 학교를 유치하여 교육도시를 조성한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중국내에서는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가 매우 적은 편이나, 경쟁력 있는 사립학교가 제주에 분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를 들면, 제주도가 시설, 토지 등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가 상당할 경우 분교 유치 가능성은 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임
- 또한 한국의 외국어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 명실상부한 교육도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국어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질 높은 교육 커리큘럼이 갖추어야 할 것임.
 - 제주지역에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국내 중국 유학수요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인들의 유학까지도 고려할 경우에는 중국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부분도 적극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
- 중국 유학수요를 제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사진, 적극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중국내 명문 학교 유치 등의 학교 퀄리티가 매우 중요할 것임. 예를 들면, 중국내 미국 국제학교보다 시설과 프로그램이 우수해야 제주 중국어 교육도시를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개요

- 일시 : 2013. 8. 27(화) 16:00 ~ 17:30
- 장소 : 상해한국국제학교(상해 소재)
- 면담자 : 최경현(상해한국국제학교 교감)

□ 주요내용

- 상해한국학교는 현재 초등 20학급, 중학교 9학급, 고등학교 12학급 등 총 41개 학급으로 학생수는 1,200명 수준임. 학교의 인증과 교육과정, 입학자격 등은 북경학국국제학교의 경우와 같음.
 - 이곳 상해국제학교는 한국어 교육과정이 중심이지만, 중국어 및 영어과정이 수준별로 운영되고, 특히 중국어와 영어관련 원어민 상담시스템을 통해 3년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상당한 어학 실력을 갖추
- 이곳 상해한국국제학교 역시 상해내 주재원 자녀들이 대부분이며, 주재원 상주기간이 보통 3년 안팎임을 가정하면, 이곳에서 재학하는 학생들도 3년 정도임.
- 중국에 유학오는 초·중등학생 등의 국내 중국 유학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나, 향후 중국유학수요를 파악하는데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학생들의 수요도 감안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이곳 학생들이 3년간 중국내 한국학교에 다니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가 한국학교에 입학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국내 교육상황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은 향후 제주에서 중국어 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중요한 점은 중국어 교육도시의 수요를 추정하는데 있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유학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학생 수요까지도 감안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접근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수요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국내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적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도시 조성과정에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상담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국내 국·공립학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교육위원회가 통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등 기본적 운영만 통제할 뿐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운용 등은 학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운영방식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국제학교인 경우에는 재정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실정임
- 이러한 중국내의 학교운영의 논리를 감안한다면, 중국학교가 외국에서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충분히 분교설치가 가능할 것임.
 - 중국학교의 해외분교 설립이 실정법 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가능하더라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유치 가능성이 있음.
- 이곳 상해학교의 경우 1년 수업료는 3만위안(6백만원) 수준이나, 상해에 있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제학교인 경우에는 1년에 5-6천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데 반해 한국 유학생 수요가 상당히 큼
- 이러한 경향은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우수학교이면서, 커리큘럼 등의 교육과정의 퀄리티가 높은 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와 상관없이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주지역에 중국어 국제학교를 유치하거나 설립할 경우 이러한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임



3. 시사점

- 중국내 국공립학교는 독립채산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학교 운영에 경제적 논리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제주 중국어 교육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국공립학교의 재정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국내 명문학교의 분교 유치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분교유치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서는 과실송금에 대한 허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뿐만 아니라 법인세 등 세제혜택의 강화, 토지 및 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국내 국공립학교 재정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특히 재정이 풍부한 대형 명문 학교의 경우(북경의 제4중학교 같은 학교)는 수요가 있을 경우 외국에 분교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제주에서 중국어 교육도시를 조성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염두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중국내 재정적으로 풍부한 학교인 경우 중국 실정법으로 분교유치가 가능하다면, 제주에 분교 유치에 대해 한번쯤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제주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중국 유학수요를 제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사진, 적극적 홍보도 중요하지만, 중국내 명문 학교 유치 등의 학교 퀄리티가 매우 중요한 것임. 예를 들면, 중국내 미국 국제학교보다 시설과 프로그램이 우수해야 제주 중국어 교육도시를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제주의 중국어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내 한국 유학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어 교육도시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내 명문학교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유학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 단순히 국내에서 중국으로 유학하는 학생수만이 아닌,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학생까지도 감안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
- 제주에 중국어 교육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중국어 교육만을 위한 국내 외국어 고등학교와는 차별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 위상 및 교육과정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야 할 것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국어 교육도시 조성을 어떠한 모델과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
 - 첫째, 중국내 한국유학생의 구체적 현황과 중국 실정법상 중국학교의 해외분교 유치가 가능한지 등과 관련하여 중국 교육부 및 교육위원회와 실무적 협조가 전체
 - 중국어 교육도시 조성의 방향을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첫째는 중국내 명문학교의 유치할 경우 국공립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공립 학교의 국제부 및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유치 전략을 면밀히 구상해야 함.
 - 이는 기존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영어권 학교의 유치관련하여 명문 사립학교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교육시스템과 사립학교 유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둘째는 중국어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도 혹은 중앙정부가 직접 학교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기존 영어교육도시의 사례를 충분히 참조하고, 설립 타당성과 함께 교육과정 및 운영 사항 등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
 - 이는 국내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면서 기존 외국어 고등학교와 차별되는 커리큘럼 및 운영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더불어, 중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사용 등의 2개 외국어 활용 등에 검토 필요
 - 마지막으로, 국·내외 영리법인 투자자를 유인하여 학교를 설립할 경우 기존의 투자인센티브 이외에 좀 더 매력적인 투자 유인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과실송금의 허용 및 법인세 등 조세 인센티브 강화책 등 제도적 차원의 투자인센티브의 획기적 개선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함.